

고, 일부러 그를 숲으로, 개간지로, 들판으로 떠밀어 길을 잃게 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게 했네. 몸을 피곤하게 해서라도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흐트리뜨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그의 상념이 쫓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사랑에 빠진 자의 영혼은 도처에서 사랑하는 대상의 흔적을 발견한다네. 밤도, 낮도, 고독 속에서의 적막도, 인가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수많은 기억을 데려가는 시간마저도, 결코 아무것도 그러한 흔적으로부터 영혼을 떼어내지는 못하는 게야. 자석에 닿은 바늘처럼, 아무리 심하게 흔들리더라도 움직임이 잦아들면 곧바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극으로 방향을 트는 법이지. 나는 윌리엄스 평야 한 가운데서 방황하던 폴에게 물었네.

“이제 어디로 갈까?”

폴은 북쪽으로 몸을 돌리며 내게 말했어.

“우리 산은 이쪽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요.”

나는 내가 그의 주의를 흐트리뜨리려고 시도했던 모든 방법이 소용없었음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미약하나마 내가 가진 이성의 힘을 총동원해 폴이 품은 연정 그 자체를 논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네. 그래서 나는 폴에게 이렇게 답했지.

“그렇다네, 그쪽이 자네가 사랑했던 비르지니가 살던 산이지. 그리고 여기 자네가 그녀에게 주었던 초상화가 있네.